

미테러사건 추모예배 설교

설교: 빌리 그레이엄 목사 / 번역: 한홍 목사 / 2001

친애하는 부시 대통령 각하, 먼저 저는 이 날을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 순간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우리의 인종과 종교와 정치적 배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 분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1일 화요일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준 충격과 분노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월11일은 아마도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음모를 감히 계획하고 실천한 이들의 비뚤어진 악마적인 음모는 이 나라의 혼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을 획책한 우리들은 언젠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키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욱 간절히 그 분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무너지고, 산이 바다 가운데로 빠질지라도 결코 두려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비극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고통 한가운데서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악은 베일에 싸인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7절을 보면, 죄의 신비로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사특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과연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했

습니다. 정말 누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겠지요.

둘째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뉴욕과 워싱턴 지역의 사람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이웃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은 우리의 조국을 분열시키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굳게 뭉치게 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이런 일을 획책한 이들은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비열한 음모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일심단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서서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르는 모습 속에 우리는 단결된 미국민의 모습을 감동 깊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줍니다. 현재, 미래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 말입니다. 현재를 위한 소망이라 함은 우리 조국 안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일어날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적 대각성, 즉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회개하고 그 분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이 생애를 향한 소망 뿐 아니라,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이 순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마음 속에 그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건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예측키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영원으로 불려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 안에 수많은 십자가 장식들이 보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이해하심을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십자가의 비극에서 빈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그 곳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악과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신 까닭입니다. 소망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수년 전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저는 그 때 막 자신의 아내를 비극적 사고로 잃었던 앤드류 영 대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오래된 찬송가인 ‘굳건한 반석’으로 마무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피납된 비행기들이 세계무역센터의 유리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한 양반 깊숙이 기초를 내리고 세워진 그 엄청난 건물들은 미국의 부와 창조와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층부가 파괴된 그 건물들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무너지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의 기초가 된 양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영 대사가 인용했던 찬송가 ‘굳건한 반석’의 가사에 담긴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조국은 공격당했고, 수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기고 폭발하여 땅으로 무너져 내리느냐,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해짐으로써 굳건한 기초 위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벌써 이 기초 위에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 기초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수일 동안 겪어야 했던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한 주는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흐르게 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한 주는 위대한 믿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 전국의 교회들이 비상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국의 교회들이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저는 앤드류 영 대사가 인용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며, 너에게 도움을 줄 것임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도와 주며, 나의 의롭고 전능한 오른손 위에 서게 해 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스런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심을 느끼고, 그분을 신뢰하는 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마음속으로부터 믿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과 그의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승리의 날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난 9월14일, 워싱턴에서 전 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미국 국가 지도자들이 드린 ‘미테러 사건 희생자를 위한 추모예배’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 설교 내용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 (2001. 9. 23.)